



핵도 전쟁도 없는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향하는 한일시민 전후 70년 성명

우리 PEACE&GREEN BOAT 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향해 10 년간에 걸쳐 한일시민에 의한 크루즈를 실시해 왔습니다. 8 회째인 이번에도 한일양국에서 500 명씩 시민이 참가해 역사, 환경, 문화, 평화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10 일간에 걸쳐 일본, 한국, 러시아를 방문해 많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크루즈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동아시아, 특히 한일의 평화와 환경에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배움과 동시에 이를 극복해 정말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서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폭투하로부터 70 년을 맞이한 8 월 9 일, 여기 나가사키에 기항해 한일시민이 평화기념식전에 참가했습니다. 선상에서는 다노우에(田上)나가사키시장, 한일 전 총리, 한일 원폭피해자분들과 함께 「피폭 70 년, 나가사키에서 미래로」 를 개최해 원폭과 방사능의 무서움, 그리고 핵무기폐기의 피폭자 분들의 바람과 노력, 나아가 핵무기금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다시한번 한일시민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8 월 14 일, 아베총리가 「전후 70 년담화」 를 발표한다고 하여 무라야마담화의 역사인식을 뒤집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는 대부분의 일본국민이 반대하고 거의 모든 일본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안보관련법안을 강행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동아시아를 전쟁의 시대로 이끌기 쉬운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는 아직 수습은 멀고 10 만명이 넘는 피해자 분들이 가설주택에 살 수 밖에 없고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고리원전주변주민이 방사선피폭에 의한 심각한 건강피해가 발생, 우너전은 동아시아의 환경과 인권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약 2 년간 1 기도 원전가동을 허용치않았던 일본에서 내일모레인 8 월 11 일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의 재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PEACE & GREEN BOAT 는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같이 요청합니다.

1. 핵무기에 의해 피폭한 자국민이 있는 한일양국정부에 대해 핵무기폐기를 향한 국제합의, 「인도상의 약속」 에 서명과 핵무기금지조약실현을 향한 성실한 외교노력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아베총리에 대해 전후 70 년담화에 무라야마 역사인식을 계승해 「침략」 「식민지 지배」 「통절한 반성」 「진심으로 사죄」 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대화에 의한 신뢰양성을 기반으로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외교를 실행할것을 요청합니다.
3. 일본의 헌법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동시에 「부전」 을 맹세한 국제공약이며 일본국헌법 9 조를 부정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군비확산경쟁과 상호불신을 부추기는 현재심의중인 일본의 안보관련법안의 폐안을 요청합니다.
4. 히로시마 · 나가사키 · 후쿠시마라는 인류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정부 및 규수전력에 대해 센다이 원전 재가동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한일양정부에 대해 탈원전 · 자연에너지를 추진하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일시민에 의한 이번 크루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70 년째인 나가사키에서 서로 인정하는 역사인식을 구축, 핵무기도 원전도 없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실현을 향해 진지하게 노력해 나갈것을 여기에서 약속합니다.

2015 년 8 월 9 일

최열(한국·환경재단 대표)

요시오카 다츠야(피스보트 공동대표)